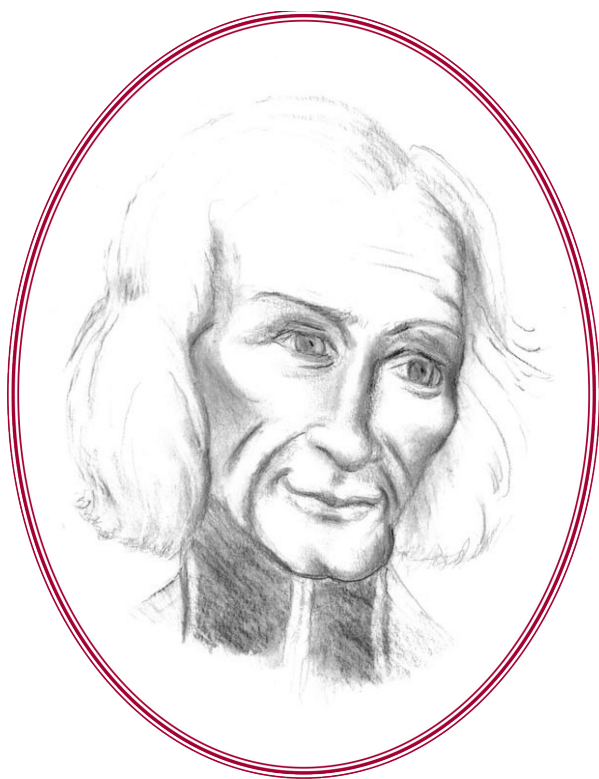


아르스의 사제 요한 비안네 성인의 메시지

사제들에게



목격 증인 모린 스위니 카일에게 주신 메시지

목 차

- 3 보편적 지침
- 6 해방의 은사
- 7 모든 성직자에게 주시는 총언
- 13 사제들을 위한 5일 기도
- 15 사제 성화를 위해 하나되신 성심께 바치는 9일 기도
 (사제들이 바치는 기도)

보편적 지침

2007년 11월 1일

요한 비안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그리스도의 자녀여, 다음은 사제들을 위한 지침인데, 이것은 이곳에 오는 사제들뿐 아니라 이 메시지들이나 이 성심회에 관해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사제들을 위한 것입니다.”

1. “양심성찰을 충분히 한 후, 고해성사를 자주 보십시오.”
2. “분별의 은사를 청하십시오. 의견이나 판단은 분별이 아닙니다. 오늘날 일부 교구들은 진보주의나 오류에 의해 타협되었음을 깨달으십시오.”
3. “수호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주신 이 그 천사를 사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4.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힘 닿는 데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전력을 다하십시오.”
5.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적 교만을 멀리하십시오. 진심으로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오.”
6.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은 강한 힘을 지니고 있으니 그들의 힘을 잘 활용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만약 사제들이 이 지침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성소를 강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016년 4월 28일

아르스의 사제이자 사제들의 수호성인인 요한 비안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날 일반 세상이나 종교계의 적인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선과 악의 뚜렷한 구별이 없다는 점입니다. 악을 용인하는 태도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심지어 종교계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들에게 은 제대 앞으로 나아

4 사제들에게

가기 전에 자신이 은총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마음을 살펴보도록 권유하지 격려되지 않기 때문에 성체성사에 대한 존경심도 줄어들었습니다. 죄가 더이상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양심 성찰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신성모독의 비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간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에 대한 해결책으로 폭력을 선택합니다. 하느님의 계명과 그분의 뜻에 대한 무관심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이 하느님의 지배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성심이 그분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 때문에 매우 고통을 당하고 계시니 이를 위해 보속의 성시간을 바치십시오. 예수 성심은 정의를 갈망하시지만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불가피한 일을 억누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거듭 거듭 인간이 당신께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더 많은 기회들을 주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가 바로 그런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회는, 이것을 환영하고 장려했어야 할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 마음속에 고집스럽게 오류를 품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은 이곳에서 봉헌되지 못한 많은 기도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진리에 사탕발림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세속 및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의 깨우침과 겸손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2018년 5월 4일

“나는 모든 백성의 아버지다.”

“모든 사제는 자신의 믿음에 관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거나 지금 겪고 있다. 이것은 세상에서 선을 약화시키는 방법이며 사제들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탄이 쓰는 방법이다. 나는 나의 힘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오늘 지상에 왔다.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해 있는 나의 아들 곁에 가까이 머물러라. 너희의 필요를 그의 중재에 의탁하여라. 어떤 사제도 스스로 선택해서 사제가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섬기도록 부름 받았다. 이 진리와 화해하여라. 이것이 너희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다. 너희 마음을 천국에, 그리고 다른 이들

을 천국으로 이끄는 데 집중시켜라.”

+ 성경 구절 독서 (콜로 3:1-10):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러한 것들에 빠져 지낼 때에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 격분, 악의, 중상, 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해방의 은사

2012년 8월 7일 / 악령으로부터의 해방

요한 비안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나는 특별히 (악령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날은 이 해방이 크게 필요한 때이지만 모든 이가 다 이 은사를 받았거나 이 사목으로 부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 교만 때문에 이 일에 매력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해방시켜 주는 일은 자신이 영적인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책을 읽거나 강론을 듣고 해방 사목에 참여하기를 갈망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해방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방 사목은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위상을 높이 고자 애쓰면서 자신이 해방 사목자라고 주장하는 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해방 사목으로 부름받은 이들은 하느님께 선택을 받은 이들로서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선택된 것이지 그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도록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겸손하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직함을 통해 정체성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제들은 만약 그들이 거룩한 사랑의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면 해방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신도들 중에도 진실로 이 은사를 받은 이가 몇몇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가 자신이 그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은사든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조심하십시오.”

“간단히 말해서, 해방 사목은 단순히 기도문을 읊조리거나 ‘해방 사목자’ 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성 그 이상이며, 영적인 것으로서 인간과 하느님 간의 상호 작용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선택하신 것 이상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지 하느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하십시오.”

모든 성직자에게 주시는 충언

2014년 5월 24일

아르스의 사제 요한 비안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내 형제들이여,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명령으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애정 어린 건설적인 비판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잘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쌓아올리고 강화시킬 뿐 절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만약 내 말에 기분이 상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교정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를 억누르려는 의향 따위는 없으며 오히려 진리의 빛을 환히 드러내기 위해 왔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파견되어 전하는 말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을 알아보십시오.”

매일 기도

“사랑하올 예수님, 제 성소가 반드시 거룩한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도와주소서. 이것은 제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이자 힘이 될 것입니다. 제 성소는 오직 제가 거룩한 만큼만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올 예수님, 제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 사심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제 양떼의 영적 필요를 세심히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게 선과 악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절대로 제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진리를 타협하도록 허락하지 마소서. 제가 모든 영혼 안에서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몹시 지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사랑할 수 있도록, 언제나 다른 이들의 영적인 필요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저를 북돋아 주소서. 아멘.”

첫번째 충언

“내 형제들이여, 천상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선과 여러분이 몇몇 영혼들과 몇몇 교구 안에서 영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는 사악한 영향력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움츠러들거나 또는 이것이 분열을 조장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히려 이 말에 고무되어 죄와 오류를 뿌리 뽑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지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오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죄악을 씻는 길을 통해서만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성소를 가장 잘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욱 힘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의 성소 또한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강단에서 죄를 분명하게 규정해야만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나 특정 이익 단체를 달래거나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어떤 죄든 타협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권세나 지배계층의 권위, 명성, 혹은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의 성소를 세속적인 직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환심을 사거나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영혼들의 구원’이라는 여러분의 성소의 기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적 행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 다른 이들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동성애와 성욕(욕정)의 영으로서 사악한 영입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에게 가라고 내게 지시하실 것입니다.”

+ 성경 구절 독서 (1 티모 6:11-18):

하느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그 대신에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지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제때에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복되시며 한 분뿐이신 통치자 임금들의 임금이시며 주님들의 주님이신 분 홀로 불사불멸하시며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분 어떠한 인간도 뵈는 일이 없고 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예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두번째 충언

“내 형제들이여, 이 건설적인 비판에 눈을 감거나 혹은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대비해 여러분의 마음과 성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출처를 비난함으로써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엄숙히 말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와서 말하는 이는 바로 나, 아르스의 사제, 요한 비안네 입니다.”

“여러분의 교구 안에 천상적 발현이 일어나는 은총이 주어지거나 이런 영적 현상을 검토해야 할 책임을 맡게 되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일에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탄압되었으며 그 일들에 수반된 은총도 방치되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이런 천상적 발현과 메시지 들을 간섭과 경쟁으로 여긴 경우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 결과, 환시와 목격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만약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직하게 진리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상의 은총이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속내를 감추고 조사를 하는 척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가 되었든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성령과 사탄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매 순간, 모든 곳에서, 모든 영혼 안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상은 천상이 원할 때 행동합니다. 아무도 천상에게 언제 어디에서 말하고 또 얼마 동안이나 말할지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위층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은 천상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할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

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평신도들을 강화시켜 달라고 천상에 의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4:10-16):

내려오셨던 그분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교한 계략에서 나온 가르침의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 성경 구절 독서 (1테살 5:19):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세번째 충언

“오늘 나는 교회 고위층에게 그들은 주교나 추기경이기 이전에 먼저 사제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사제들은 반드시 자신의 개인의 거룩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랑을 떠나서는 거룩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제들은 반드시 말과 행동에 있어 자신들의 양떼에게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권한 남용을 위한 어떤 숨은 의도도 없어야 함을 뜻합니다.”

“사제들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이 성사를 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제들은 강단에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사에 참여할 것을 격려해야 합

니다. 매주 한 번 제공되는 30분간의 고해시간은 어느 사제의 양떼가 되었던 양떼의 영적 복지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소홀함이나 죄에 대해 설교하기를 꺼리는 태도의 나쁜 열매입니다.”

“사제는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성소를 보호해야 하며,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여가시간을 채우시게 해야 합니다. 사제는 사교 모임의 단장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체 조배를 장려하는 본당은 크게 축복받을 것이며, 많은 성소가 그런 본당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스캔들이 일어나는 본당에서 성소가 싹트고 꽃피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먼저 고위층과 사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개인의 거룩함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네번째 충언

“사제들에게 하는 내 마지막 훈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소는 오직 여러분이 거룩한 만큼만 강할 뿐입니다.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길뿐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십계명의 구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랑을 통해 더 깊은 기도 생활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크고 작은 희생에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뛰어난 영적 기량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해지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개인의 거룩함을 향한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또 다가가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사제들과 고위층에게 말한 것 중에서 어떤 것도 수정될 수 없으며 또 수정되어서도 안됩니다. 나는 자존심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직자를 다시 진리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온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진리를 찾고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성소는 타협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리에 반대하기 위해, 혹은 어떠한 것이든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사람들과 상황을 조작하기 위해 여러분의 권한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하느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나는 절대 내 말을 수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라고 파

견된 만큼 나는 타협 없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나는 뉘앙스나 타협 없이,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비방 없이 모든 성직자에게 신앙의 진실들 안에서 일치하라고 요구하는 일에 있어 단호해야만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모든 것을 조롱하는 태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고찰하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4:2-7, 11-16):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교한 계약에서 나온 가르침의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 비안네 성인께 바치는
사제들을 위한 5일 기도
(성모님께서 주심)

제 1일

아르스의 사제이신 사랑하올 요한 비안네 성인이지여,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저희를 위해 사랑하올 아드님께 중재해 달라고 청해주소서. 모든 사제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신성한 통찰력을 얻게 해주소서. 사제들에게 직무에 필요한 인내와 용기를 주시고, 세상의 사악함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소서. 아멘. (1986년 6월 7일)

○성모송

제 2일

아르스의 사제이신 사랑하올 요한 비안네 성인이지여, 영혼들에 대한 크나큰 열정으로 세상 모든 사제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소서. 인류에 대한 큰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한 성심으로 그들을 가까이 이끌어주소서. 각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그들에게 주소서. 사제들에게 마음과 정신의 평화를 주소서. 아멘. (1986년 7월 5일)

○성모송

제 3일

아르스의 사제이신 사랑하올 요한 비안네 성인이지여, 당신처럼 모든 사제들이 성령의 은사로 가득차도록, 그들의 마음에 가난에 대한 큰 사랑을 심어달라고 예수님께 청해 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통해 비나이다. 아멘. (1986년 8월 2일)

○성모송

제 4일

아르스의 사제이신 사랑하올 요한 비안네 성인이시여, 모든 사제가 자신의 서약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자기 양떼의 회심을 위해 보속을 바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도록 그들을 위해 중재해 주소서. 겸손되이 청하오니, 저희의 간청이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움직이게 하소서. 아멘. (1986년 9월 6일)

○성모송

제 5일

아르스의 사제이신 사랑하올 요한 비안네 성인이시여, 당신의 형제 사제들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 주소서. 모든 사제들을 위해 중재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인 사랑의 은사를 당신의 형제 사제들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통해 예수님께 간청해 주소서. 아멘. (1986년 10월 4일)

○성모송

사제 성화를 위해
하나되신 성심께 바치는 9일 기도
(이 9일 기도는 사제들이 바쳐야 합니다)

2009년 5월 19일

요한 비안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내 어린 딸, 하느님의 자녀여, 나는 모든 사제들을 위한 이 9일 기도를 전해 주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영원하신 현재의 명령에 의해, 하나되신 성심의 중재를 통해 내부에서부터 교회를 강화시키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성소를 타협하고 있는 많은 사제들을 다시금 거룩한 사랑의 길인 의로움의 길로 되돌릴 것입니다.”

“다음의 기도를 매일 바치십시오:”

매일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하나되신 성심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간청하오니, 저의 모든 나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소서. 저의 성소(聖召)는 당신에게서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 주소서. 제가 돌보는 모든 이들에게 제가 신성한 사랑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게 마음이 가장 완고한 영혼도 감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아멘.”

제 1일

“하나되신 성심의 무한한 권능과 은총,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중재를 통하여 청하오니, 저에게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매 현 순간 이 갈망을 강화시켜 주시어 제가 보살피는 이들 안에 깊은 개인 성화의 영감을 불어넣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당신께 대한 제 사랑이 더욱 커지게 하소서. 아멘.”

16 사제들에게

제 2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중재를 통하여 지극히 거룩한 하나되신 성심께 청하오니, 제게 맡겨진 이들에게 개인 성화에 대한 갈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제 양떼의 마음 안에 이 갈망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거룩한 담대함을 저에게 주소서. 저 자신의 모범으로 그들을 격려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제 3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중재를 통하여 지극히 보배로우신 하나되신 성심께 청하오니, 양떼에게 성사를 집전하는 것이 사제로서의 의무라는 것을 제가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이는 성사들(특히 성체성사와 고백성사)이 개인 성화를 보호하고 격려함은 물론, 교구 전체를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저는 양떼에게 성체 조배는 물론 고해를 자주 하도록 격려해야만 합니다. 제가 시간을 이기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양떼가 이 성사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사랑하올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제 자신의 안락보다는 다른 이들의 영적 복지를 우선시 하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제 4일

“티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의 중재를 통하여 지극히 거룩한 하나되신 성심께 청하오니, 사제로서 양떼의 성덕을 키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는 성덕이 개인 성화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올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제 양떼에게 현 순간의 거룩한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치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이는 모든 성덕이 거룩한 사랑에 그 기초를 두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 5일

(2009년 5월 20일 요한 비안네 성인께서는 다음의 메시지와 함께 제 5일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요한 비안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거룩한 삼위일체 하느님의 하나되신 성심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중재를 통하여 사제들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하느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의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 성덕은 동반

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다른 한쪽 없이는 영혼 안에서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성덕의 깊이는 다른 성덕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사제들은 매일 이 두 가지 성덕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제들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중재를 통하여 지극히 거룩한 하나되신 성심께 청하오니,* 제가 거룩한 사랑이나 거룩한 겸손의 어떤 시험에도 실패하지 않게 하소서. 이 시험은 하느님께서 제게 모든 덕을 실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매 시험에 성공하도록 주시는 모든 은총들을 받아들이게 해 주소서. 또한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칠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 2007년 8월 18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사제들에게 주신 기도를 바치십시오:

(2007년 8월 18일 / 대중을 위한 메시지 / 사제들에게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의 딸아, 나는 모든 사제들이 이 기도를 받아들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매일 바쳐주기를 바란다. 이 기도는 성소를 강하게 만들어 주고, 쇠약해진 영혼들에게는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사랑하올 예수님, 저는 제 자신을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 아래 두나이다. 저는 이 축복을 통해 저의 결점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도움으로, 저는 제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거룩함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과 단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겠나이다.”

“제 마음에 모든 성덕에 대한 사랑, 특히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에 대한 큰 사랑을 심어주소서. 그리하여 제 안에서 모든 성덕이 자라나게 하소서. 저는 거룩해지기를 원하오며, 하느님의 신성한 뜻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성화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충실히 바치는 사제들의 성소는 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것이다. 내 손에 의해 그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부성적인 성심으로 인도될 것이다.”)

제 6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중재를 통하여 지극히 거룩한 하나되신 성심께 청하

18 사제들에게

오니,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는 무질서한 욕망을 제 마음에서 없애주소서. 제 양떼를 돌보기에 앞서 재물에 애착하지 않으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느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신뢰하겠나이다. 제게 용기와 거룩한 담대함을 주시어 모든 죄들, 심지어 낙태와 동성 결혼, 안락사, 태아 줄기세포 연구와 같이 사탄이 정계에 몰고 온 죄들에 대해서까지 거리낌없이 반대하게 하소서. 주님, 정의의 혀를 제게 내려주소서. 아멘.”

제 7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중재를 통하여 지극히 보배로우신 하나되신 성심께 청하오니, 사제로서 항상 겸양의 덕과 영적 가난의 가치를 자각하도록 도와주소서. 결코 제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우선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제 개인 성화는 하느님과 이웃을 모든 것에 우선하게 하려는 저의 노력에 달려있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제가 명예와 물질적인 이익, 지적 교만의 거짓 신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것들은 모두 진보주의가 성소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간청하오니 저를 이러한 덫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아멘.”

제 8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중재를 통하여 지극히 거룩한 하나되신 성심께 청하오니, 제가 항상 진리의 영을 통하여 말하고 가르치도록 도와주소서. 이 타협의 시대에 저는 신앙의 전통을 거스르는 모든 이단과의 싸움에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리서가 가르치는 모든 것에 제가 확고한 입장을 취하게 하시고, 절대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려고 제 관점을 바꾸지 않게 하소서. 아멘.”

제 9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중재를 통하여 지극히 보배로우시고 사랑 바로 그 자체이신 하나되신 성심께 청하오니, 당신의 충실한 사제로서 제 양떼에게 예수님의 승리의 재림을 준비시키도록 도와주소서. 저는 예수님의 승리가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승리가 될 것임을 알고 있나이다. 이 메시지들이 성서적으로 건전하며 진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메시지들을 전파하고자 하는 저의 모든 노력을 도와주소서. 거룩한 사랑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자 구원

의 길이므로, 다른 이들에게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 것을 격려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낙담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담대함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2009년 5월 22일

요한 비안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방금 자매님이 받아쓴 9일 기도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이 9일 기도 안에는 좋은 사제가 되기 위한 가르침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제는 자신의 개인 성화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의 거룩함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제는 이것을 진실하게 추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교 모임의 단장 또는 재무 책임자 역할을 하거나 진보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제 자신의 거룩함의 여정과 그에게 맡겨진 모든 이의 거룩함의 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다른 모든 것은 매우 보잘것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제의 마음에서 바로 이 점을 살피보십니다. 과연 오늘날 이런 단순함 안에서 살고 있는 사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d. North Ridgeville, OH 44039

(영) 440-327-8006 www.holylove.org

(한) 440-657-0113 www.holylovekorean.com

Rev. 4.2021